**생활과 윤리 + 윤리와 사상 복합정리 (중간본)**

ver. 20200809, edited by @metamonmongu.\_.u

All rights reserved.

불교

- 몸의 본체인 '혜'와 몸의 작용인 '정'을 따라야 한다. (X)

=> 몸의 본체는 '정'이고, 몸의 작용이 '혜'이다.

- 쾌락과 고통의 양 극단을 넘어서는 올바른 수행을 행해야 한다. (O)

- 모든 현상은 인간 스스로 행한 업의 결과이므로 도덕적 행동인 선업을 행해야 한다. (O)

- 부모에 대한 효는 부모의 공덕에 따른 것이다. (O)

- 혜능은 보살의 힘과 염불에 의존하여 해탈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. (X)

=> 비판했다.

- 혜능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성을 직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(O)

성리학

조선 성리학자 이황

- 칠정의 선악은 이의 주재능력 발휘에 달려있다고 본다. (O)

=> 칠정은 기발이승이므로 이의 미발상태이다. 이가 주재하면 가선가악한 칠정이 선할 수 있다.

- 칠정은 항상 악하다. (X)

=> '가'선'가'악이다.

데이비드 흄 (경험주의)

- 도덕적 선악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의 품성 자체에 있다. (X)

- 도덕적 선악은 객관적 실체이다. (X)

- 도덕적 선악은 사회적 '유용성', 혹은 자연적 경향성에 의한 승인과 부인의 감정에 기초한다. (O)

- 도덕적 선악의 기준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있다 (X) -> 인간의 감정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보편적 감정에 기초함. 이 보편적 감정이 이성적 부분은 아니지만,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라는 것.

- 흄은 도덕적 감정의 근원을 유용성이라고 보았다. (O) -> 야박한 유용성이 아님.

'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'은 '사회적' 유용성의 설득력을 높여주었고 공리주의에 영향을 주었음.

- 유용성에서 비롯된 -> 도덕적 감정 -> 도덕적 행동 -> 시인(승인)의 감정. for 우리 사회의 이익!

- 유용성이 도덕감정의 원천이다. (O)

- 도덕적 감정을 통해 악덕과 덕을 구별할 수 있다 (O) : 이는 보편적임.

- 도덕적 감정 = 공감 = 보편적

- '공감' 이라는 '자연적 성향'에 따른 사회적 유용성.

- 덕과 악덕의 차이는 관념들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. (X)

=> 우리의 자연스러운 보편적 도덕감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지, 관념들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.

- 이성적 사유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기여할 수 있다. (O)

(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나 상황 등을 파악할 때 이성이 기여할 수 있다)

플라톤 ∩ 아리스토텔레스

- 철학자만이 성취할 수 있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. (O) - 2019.10월

=>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모두 '철학적 지혜'를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가

최고의 행복이라고 본다.

아리스토텔레스

- 목적론적 세계관 : 모든 인간을 행복 '그 자체'를 목적으로 추구한다.

-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.

에피쿠로스

- 개인 간의 정의는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인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. (O)

- 개인 간의 정의가 필요한 것은 최고선인 쾌락을 얻기 위함이다. (O)

(≠플라톤. 플라톤은 정의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. 이데아 - 정의론 생각)

토머스 아퀴나스 (중세 크리스트교)

- 자연적 성향은 동물과 인간 모두 존재한다. (O) => 목적론적 자연관 ex) 생존, 번식의 욕구

- 신앙과 이성은 모두 신이 준 것으로, 신에게 귀결된다. (O)

- 신과 자연과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. (O)

스피노자 (근대 서양 사상가)

- 범신론

- 인간과 사물은 무한한 실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. (O) -2018. 9월 평가원

-> 이를 뜯어보자. 인간과 사물은, '무한한 실체'가 다양한 모습으로 '나타난' 것이다.

즉, 인간과 사물이 무한한 실체라는 것이 아니라, 무한한 실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'양태'라는 것이다.

- 인간과 사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실체다. (X)

- 이성을 통해서 정념 발생의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세요. (O)

르네 데카르트

- 방법론적 회의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수단이다. (O)

임마누엘 칸트 - 의무론

- 개인의 준칙이 격률이 되려면 보편화 가능해야만 한다. (X)

준칙=격률=주관적. 동어반복이다. -2020. 7월 이투스 전국연합

- 실천 이성이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의 포기를 명하지는 않는다. (O)

=> 의무와 행복은 양립가능하다는 뜻이다. 다만 의무와 행복이 대립할 때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

의무만을 생각해야 한다.

-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것도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있다. (X)

=> 칸트가 생각하는 자연적 경향성은 이성이 아닌 욕구다. 이는 정약용과의 공통점.

임마누엘 칸트 ∩ 정약용

- 인간과 동물은 모두 자연법칙에 의한 경향성에 따르는 행동을 한다. (O)

(칸트 - 자연법칙에 따른 경향성적 행위로서 비이성적 행동 / 정약용 - 형구의 기호)

- 인간과 동물은 자연법칙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.

(칸트 - 의무의식, 선의지 / 정약용 - 영지의 기호)

임마누엘 칸트 ∩ 체사레 베카리아

- 인간존엄성의 측면에서 사형제를 검토하였다 (칸트 : 인간존엄성 실현, 베카리아 : 인간존엄성 무시)

임마누엘 칸트 - 영구 평화론

-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. (X)

=> 국제기구, 외교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행위자가 될 수 있다.

현실주의 - 모겐소

-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와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. (O) - 당시 미국의 정책노선에 반영됨

토머스 호브스

- 시민들은 군주에게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다. (X)

=> 주권 완전 양도설이므로 저항권 인정하지 않으나, 인민보호능력이 없는 절대군주는 '권위'를 상실한다.

즉,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목적인 '생존권 보장'을 실현하지 못하면 파괴 가능하다. -> 저항권 애매하니 찾아볼 것

존 로크

- 존 로크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였다. (X)

=> 로크가 권력의 분립 (입법권과 행정권)을 주장하긴 하였으나 입헌군주제를 부정한 것은 아님.

입헌군주제와 절대군주제를 헷갈리지 말자.

- 한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신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. (O)

장-자크 루소

- 주권은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. (O)

=> 루소는 주권양도를 인정하지 않았다. 다만 사형제는 인정했다.

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

- 사회주의 혁명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.

- 폭력혁명을 주장하였다.

- 노동자 (프롤레타리아)와 자본가 (부르주아)와의 연대를 강조하였다. (X)

-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동하는 존재이다.

- МАНУФАКТУРА : 자본주의와 분업의 상징.

민주사회주의 (프랑크푸르트혁명)

- 민주사회주의는 노력에 따른 분배를 인정한다. (O)

피터 싱어 - 존 롤스 : 해외원조

- 원조의 주체

피터 싱어 : 우리 모두 원조의 주체 O. 정부와 국제기구 역시 주체가 될 수 있음. 세계시민으로서 개인의 의무적 측면 강조함.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너라도 나서라.

존 롤스 : well - ordered society 및 국가/사회 중심. 국제주의적 입장으로서 국가 간의 경계를 중시함 (싱어가 비판하는 지점).

원조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 (O)

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 (X)

전 지구적 분배 정의 실현, 자원 배분의 우연성 조정, 국가 간 평등 실현, 차등의 원칙 실현 (X)

정의론

마이클 레이번 왈처

- 정의의 원칙이 개인의 정체성을 배제시킨 상황에서 도출되어서는 안된다.

=> 존 롤스의 ignorance of veil 비판.

시민불복종

헨리 데이비드 소로

-인두세를 내지 않아 감옥에 가게 된 적이 있다.

"만약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의 필수 불가결한 마찰의 일부분이라면 그냥 내버려두라. 모르긴 하지만 그 기계는 결국에는 닳아 없어질 것이다. 그러나 이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, 분명히 말하는데, 그 법을 어기라.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그 기계를 멈추는 역마찰이 되도록 하라.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극력 비난하는 해약에게 나 자신을 빌려주는 일은 어쨌든 간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."

존 롤스

- 차등의 원칙에 대한 부정의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(O)

=> 제1원칙 :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위반을 제외한 차등의 원칙에 대한 '위반'에 대해서는 시민 불복종을 인정하지 않는다. 기준도 애매할 뿐더러,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뉘앙스.

-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. (O)

-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부정의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. (X)

-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심각하고 현저한 위반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. (X)

전쟁에 대한 입장

- 모든 전쟁 반대 :

- 거의 모든 전쟁 반대, 일부 전쟁 인정 : 임마누엘 칸트(방어전), 존 롤스 (정의전쟁론), 묵자(방어전)

- 전쟁 인정 : 한스 요아힘 모르겐사우 (목적이 수단을 정당화), 마이클 레이번 왈처 (정의전쟁론), 아퀴나스

정의전쟁론 - 마이클 레이번 왈처

- 전쟁은 어떠한 도덕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.(×)

- 전쟁의 정당한 명분을 사회 전체의 효용에서 찾아야 한다.(×)

- 전쟁의 정당한 명분보다 전쟁 수행의 규범을 중시해야 한다.(×)

- 전쟁은 국가의 주권 사항이므로 도덕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.(×)

- 전쟁 개시의 정당한 명분만으로 그 전쟁이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.(○)

정의전쟁론 관련 선지 정오판단

1. 왈처는 부정의하게 전쟁을 시작했다면 전쟁 수행 과정은 정의로울 수 없다고 본다. (×)

2. 왈처는 전쟁 개시의 정의가 전쟁 수행 과정의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. (○  )

3. 아퀴나스는 전쟁이 정의로우려면 오직 합법적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 전쟁이 선포되고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.(○)

4. 왈처는 자국의 합당한 이익에 대립하는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. (○)

  왈처는 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라고 보았다.

5. 왈처는 전쟁 개시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면 전쟁이 아닌 다른 평화적 수단을 동원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.  (○)

6. 왈처는 잔혹한 반인륜적 범죄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능력을 국가가 가지지 못할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본다.  (○)

7. 왈처는 부당한 침략에 대한 방어 전쟁을 정당하다고 본다. (○)

8. 왈처는 모든 전쟁을 부정하는 평화주의와 모든 전쟁을 정당화하는 현실주의 모두를 반대한다. (○)

9. 왈처는 가벼운 인권 침해는 전쟁이 아닌 자체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했다.  (○)

10. 왈처는 어떤 나라가 비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경우, 그 나라에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, (×)

11. 전쟁은 국가의 주권 사항이므로 도덕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.(×)

12. 전쟁개시의 정당한 명분만으로 그 전쟁이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. (○)

13. 개전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전쟁 수행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한다. (×)

14. 전쟁이 부당하게 개시되더라도 정당하게 종식될 수 있다.  (○)

15. 왈처는 개인이나 국가가 인도적 개입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.  (×)

16. 인권 침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.(○)

17. 무력 개입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당사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.(×)

18. 전쟁의 정당성 논의는 전쟁이 끝남으로써 종식된다. (×)

19. 왈처는 무력 개입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다고 본다.  (×)

20.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전당하지 않다.(○)

21. 적법한 통치자에 의해 선포된다면 모든 전쟁이 정당한가? (×)

22. 타국 내의 부정의(不正義)가 심할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? (○)

23. 인권침해만으로는 정당한 전쟁의 조건이 완비되지 않는다.(○)

24. 전쟁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일 분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.(×)

25. 전쟁은 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. (×)​

26. 인권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국제 정의를 도모할 수 있는가.(○)

27. 생명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지역은 무력 개입이 필요한가​(○)

28. 모겐소는 국제 사회에서 합리적 이해와 가치의 공유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.(○)

29. 모겐소는 국가보다 상위의 권력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.(○)